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행복: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Mothers' Play Beliefs and Preschoolers' Happiness: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ers' Playfulness

오혜인¹ 신나나²

Hyein Oh¹ Nana Shin²

ABSTRACT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ers' play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lay beliefs and preschoolers' happines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3 preschoolers between the ages of 3 and 5 and their mothers. Mother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at assessed their beliefs about play,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they provided, as well as their child's playfulness and happines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program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mothers' play support beliefs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ir preschoolers' happiness. Additionally,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lay beliefs and their preschooler's happiness. The children's playfulness was also identified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lay beliefs and their preschooler's happiness.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lay beliefs and preschoolers' happiness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ers' playfulness.

Conclusion/Implications: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into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aimed at modifying mothers' play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key words play beliefs, creative home environment, playfulness, happiness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석사

² 교신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I. 서론

행복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연합(UN)은 2012년부터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발전을 넘어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같은 질적 성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 경제, 복

지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복은 전 생애 발달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유아기에 경험하는 행복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Yang, 2008), 이 시기 사회적 유능성(Shin et al., 2011), 회복탄력성(이하정, 탁정화, 2015), 대인 간 문제해결 전략(권기남, 성미영, 2010)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유아기 행복은 이후 발달이나 성취, 삶의 질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 Neve et al., 2013; Ward & Sutton, 2009). 따라서 유아의 행복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 도남희 등(2014)은 유아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유아들이 놀이와 응답하여 놀이가 유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놀이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부모의 놀이신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경철 등, 2019; 김명순 등, 2013; Fisher et al., 2008). 부모의 놀이신념은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을 뜻하며, 자녀의 놀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개념적 틀로 작용한다(Fogle, 2003). Fogle(2003)은 부모의 놀이신념을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놀이지지신념은 놀이를 자녀의 전인 발달에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놀이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반면 학습중심신념은 놀이의 발달적 가치를 부정하고, 숫자나 문자를 학습하는 것과 같은 학업 기술을 더 중시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부모가 학습중심신념보다는 놀이지지신념을 더 가질수록 유아와의 놀이에 더 참여하며, 유아가 또래와 더 놀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이효임, 신나리, 2020; 최민자, 김진경, 2022; Parmar et al., 2004). 따라서, 유아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놀이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념은 유아의 행복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놀이하는 어머니의 놀이신념의 영향이 클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행복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놀이의 발달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아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을 가질 때,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권리로서 인정할 때, 유아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갑순, 채신영, 2021; 박영애, 김리진, 2011; 이현지, 정혜옥, 2016). 이러한 연구들에 미루어볼 때,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가질 때 유아의 행복이 증진되지만, 놀이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중심신념을 가질 때 유아의 행복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다. 그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가정환경으로, 가정환경은 부모의 기대나 가치관이 반영되는 현장이자,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중에서도 창의적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창의적 가정환경이 놀이를 촉진하는 가정환경으로 다수의 연구들(임진경, 노은호, 2014; 조해연, 2014; 장은정, 2001)에서 제안한 유아의 모험과 새로운 활동을 자극하고,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정환경이라는 점에 기인하였다. 창의적 가정환경은 어머니의 놀이신념의 영향을 받는데, 긍정적 놀이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가정에서 풍부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유아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자극하였으며(안세은, 김지현, 2022), 유아의 놀이에 높은 지지를 보이는 부모일수록 놀

이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가정환경 내에 충분히 마련하였다(Schneider & Rosenblum, 2014).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행복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창의적 가정환경의 요소와 유사한 어머니가 유아의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하는 양육을 하고 자율성을 부여할 때 유아의 행복감이 높았다(김혜숙, 고재홍, 2018; 최정화, 김정화, 2021). 반면, 유아에게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행하고,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과보호가 이루어질 때 유아의 행복 수준은 낮았다(우혜진,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의 매개 역할을 가정해볼 수 있다. 김갑순과 채신영(2021)은 어머니가 유아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를 더 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행복을 증진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신념은 가정환경에 반영되고, 이를 매개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행복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남희 등, 2014; 박주은, 2016; 최성열, 2016; Permiakova et al., 2016)은 유아의 행복은 부모,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아의 개인적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대한 태도와 성향을 의미하는 놀이성(Barnett, 1991; Dewey, 1993; Leiberman, 1965)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된 놀이 행동과 양상이 발현되게 하며 유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놀이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Dewey, 1993)에 근거하였다. 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머니가 놀이를 유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놀이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았다(강주연, 이진희, 2020; 심미영, 이문옥, 2018; 유미, 2008). 반면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수예, 김현경, 2021)에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여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과 행복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유아가 놀이 안에서 놀이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충족시킬 때 유아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안미현, 김정미, 2017; 최유석, 임지영, 2021; 홍지명, 2021), 놀이성이 높은 아동은 놀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즐거움과 성취를 얻으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곽은영, 2012). 이처럼 놀이성은 유아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행복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해볼 수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사한 변인들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유석과 임지영(2021)은 부모가 유아의 놀이가 더 확장되도록 참여하고 지원할 때, 유아의 놀이성이 증진되어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애와 김리진(2011)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놀이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가 가지는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가정에서 다양한 학습도구가 제공되고, 부모가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양육은 유아의 놀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지윤, 2016; 장영숙, 조혜정, 2006; Fung & Chung, 2022). 또한 놀잇감과 놀이도구가 충분한 풍부한 환경(조혜연, 2014),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통제가 적은 환경(김영희, 2012; 장은정, 2001)은 유아의 놀이를 증진하는 환경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사한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부모가 가진 아동권리 인식이 가정 내에서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자녀의 놀이 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영, 박현선, 2020). 또한 어머니가 참여적 놀이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시도를 더 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을 향상시켰다(심미영, 이문옥, 2018).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이 유아의 놀이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유아의 행복은 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환경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창의적 가정환경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행복을 증진하는 요소로서 놀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부모의 신념과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가정환경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 233명과 이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에 초점을 둔 이유는 이 시기에 경험하는 행복이 이후의 성취나 발달과 관련되며, 삶의 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전미경, 장재숙, 2009; Ward & Sutton, 2009).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자이며,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놀이 상대자가 된다. 이에 행복과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유아기에 주목하여, 유아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33)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연령	
남아	115(49.4)	만 3세	77(33.0)
여아	118(50.6)	만 4세	95(40.8)
		만 5세	61(26.6)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외동	111(47.9)	20~29세	9(3.9)
첫째	67(28.9)	30~39세	162(69.5)
둘째	46(19.4)	40~49세	62(26.6)
셋째 이상	9(3.8)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0.4)	전업주부	102(43.8)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1(9.0)	사무직	59(25.3)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중퇴	40(17.2)	전문직	32(13.7)
대학교 졸업	151(64.8)	판매, 서비스직, 생산, 노무직	15(6.4)
대학원 이상	20(8.6)	기타(관리직, 자영업 등)	25(10.7)

2. 조사도구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1) 어머니의 놀이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은 Fogle(2003)이 개발한 부모 놀이신념 척도(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이현지와 정혜욱(201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놀이지지신념(17 문항)과 학습중심신념(8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놀이지지신념은 ‘놀이는 협동하기, 친구 사귀기 등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등이 포함되며, 학습중심신념은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놀이지지신념 .91, 학습중심신념 .72이었다.

2) 창의적 가정환경

창의적 가정환경은 오미형과 최보가(2006)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창의적 가정환경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존중, 풍부한 학습환경, 독립심 자극, 가족의 압력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32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아동존중(8문항)은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이의 생각을 물어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학습환경(9문항)은 ‘우리 집에는 아이의 흥미를 끄는 많은 것들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독립심 자극(7문항)은 ‘나는 내 아이가 모험을 즐기기를 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가족의 압력(8문항)은 ‘나는 아이에게 과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아동존중 .79, 풍부한 학습환경 .76, 독립심 자극 .69, 가족의 압력 .7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가정환경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전체적인 수준에 초점을 두고자 선행연구들(안선희, 성은현, 2016; 안세은, 김지현, 2022)에 근거하여, 각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가족의 압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였다. 창의적 가정환경 문항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은 김명순 등(2012)이 부모 보고용으로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 몰입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주도적 참여(15문항)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놀이 집단에 합류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융통성(9문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가지고 놀이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즐거움의 표현(6문항)은 ‘놀이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소리내어 웃는다.’ 등의 문항이, 자발적 몰입(5문항)은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주도적 참여 .85, 인지적 융통성 .81, 즐거움의 표현 .80, 자발적 몰입 .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놀이성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자 각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4) 유아의 행복

유아의 행복은 이은주(2010)가 개발한 유아행복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 생활만족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몰입(4문항)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건강(4문항)은 ‘건강한 생활을 한다.’, 영성(5문항)은 ‘동화 또는 이야기에 쉽게 감흥한다.’, 또래관계(4문항)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교사관계(5문항)는 ‘교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지 및 성취(5문항)는 ‘어려운 퍼즐을 잘 맞춘다.’, 정서(4문항)는 ‘정서가 안정적이다.’, 부모관계(3문항)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생활만족(2문항)은 ‘당신은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몰입 .72, 건강 .75, 영성 .72, 또래관계 .69,

교사관계 .72, 인지 및 성취 .66, 정서 .45, 부모관계 .53, 생활만족 .6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들을 합산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3. 조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수집되었다.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통해 만 3~5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어린이집의 동의 하에 온라인 알림장으로 어머니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전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읽고, 이에 동의할 경우 문항에 응답하였다. 총 24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부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료 6부를 제외한 총 2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고,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6번을 통해 연속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신뢰구간 95%에서 5,000번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놀이신념, 창의적 가정환경, 유아의 놀이성 및 행복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71~1.07, 첨도는 -.36~1.23으로, 왜도가 3미만, 첨도가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의 하위요인인 놀이지지신념은 학습중심신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51, p < .001$), 창의적 가정환경($r = .51, p < .001$), 놀이성($r = .70, p < .001$) 및 행복($r = .69, p < .0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보일수록 학습중심신념은 낮았던 반면,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 행복 수준은 높았다. 학습중심신념은 창의적 가정환경($r = -.29, p < .001$), 놀이성($r = -.43, p < .001$) 및 행복($r = -.29,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을 보일수록 창의적 가정환경 수준이 낮았고, 유아의 놀이성과 행복도 낮았다. 다음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놀이성($r = .51, p < .001$)과 행복($r = .56,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창의적 가정환경이 제공될수록 유아의 놀이성과 행복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성은 행복과 정적 상관을 보여($r = .76, p < .001$), 놀이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도 높았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33)

변인	1	2	3	4	5
1.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2.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51***	-			
3. 창의적 가정환경	.51***	-.29***	-		
4. 유아의 놀이성	.70***	-.43***	.51***	-	
5. 유아의 행복	.69***	-.29***	.56***	.76***	-
M	4.26	2.47	3.52	4.09	3.85
SD	0.51	0.69	0.36	0.43	0.45
왜도	-.71	1.07	-.29	-.13	-.21
첨도	-.13	1.23	.06	-.36	-.14

*** $p < .001$.

2.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어, 어머니의 놀이신념의 두 하위요인인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은 서로 독립적이므로(최은혜, 2022; Hirsh-Pasek et al., 2009),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1)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총효과를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231) = 206.37, p < .001$), 어머니의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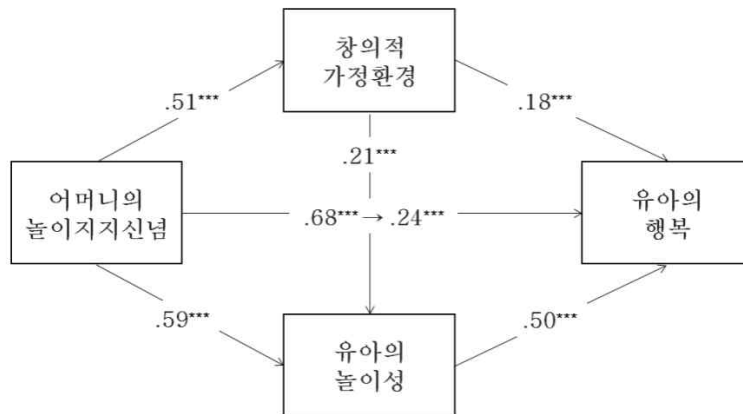
지지신념은 유아의 행복을 47%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행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 = .68, p < .001$)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이 포함된 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창의적 가정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의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231) = 83.14,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26%였다.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창의적 가정환경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 = .51, p < .001$),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가질수록 창의적 가정환경을 더 조성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 230) = 125.86, p < .001$), 두 변인은 함께 유아의 놀이성을 52%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수준이 높고($\beta = .59, p < .001$), 창의적 가정환경 수준이 높을수록($\beta = .21, p < .001$) 유아는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창의적 가정환경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 229) = 141.90,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65%였다.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놀이지지신념을 보이고($\beta = .24, p < .001$), 창의적 가정환경이 조성될수록($\beta = .18, p < .001$),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beta = .50, p < .001$) 유아의 행복 수준이 높았다.

표 3.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 (N = 233)

경로	B	β	S.E.	t	F^2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유아의 행복(c)	.61	.68	.04	14.37***	.47
$F(1, 231) = 206.37^{***}$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창의적 가정환경	.36	.51	.04	9.12***	.26
$F(1, 231) = 83.14^{***}$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유아의 놀이성	.50	.59	.04	11.18***	.52
창의적 가정환경 → 유아의 놀이성	.25	.21	.06	3.90***	
$F(2, 230) = 125.86^{***}$					
창의적 가정환경 → 유아의 행복	.23	.18	.06	3.82***	.65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행복	.52	.50	.06	8.84***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 유아의 행복(c')	.22	.24	.05	4.31***	
$F(3, 229) = 141.90^{***}$					

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인의 총효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의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의미함.

*** $p < .001$.



주) 화살표 앞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인의 총효과, 화살표 뒤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의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의미함.

*** $p < .001$.

그림1.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beta = .68, p < .001$)은 매개변인을 투입한 후에 감소하였다($\beta = .24, p < .001$).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부분매개됨을 알 수 있다.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 각각을 통한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표 4),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beta = .09, 95\% \text{ CI} = .04, .15$)과 유아의 놀이성($\beta = .30, 95\% \text{ CI} = .21, .39$)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beta = .05, 95\% \text{ CI} = .02, .09$).

표 4.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N = 233)

경로	부트스트래핑 추정치		95% 신뢰구간	
	간접효과(β)	표준오차	하한선	상한선
X → M1 → Y	.09	.03	.04	.15
X → M2 → Y	.30	.04	.21	.39
X → M1 → M2 → Y	.05	.02	.02	.09

주 1) bootstrap 표본은 5000번임.

2) X =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 M1 = 창의적 가정환경, M2 = 유아의 놀이성, Y = 유아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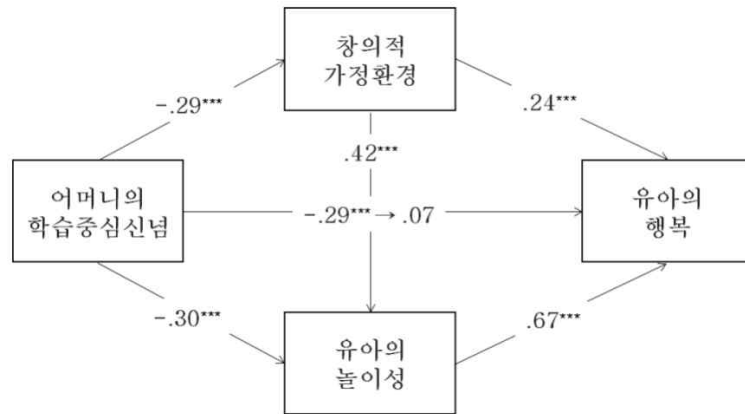
2)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표 5, 그림 2),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총효과를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31) = 21.30, p < .001$).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행복을 8% 설명하였으며,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이 낮았다($\beta = -.29, p < .001$). 다음으로, 매개변인이 포함된 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창의적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231) = 21.49,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9%였다.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을 가질수록 창의적 가정환경을 덜 조성하였다($\beta = -.29, p < .001$). 둘째,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 230) = 61.31,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35%였다.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을 가질수록($\beta = -.30, p < .001$), 그리고 창의적 가정환경을 덜 조성할수록($\beta = .42, p < .001$)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과 창의적 가정환경, 유아의 놀이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 229) = 127.36,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63%였다. 창의적 가정환경($\beta = .24, p < .001$)과 유아의 놀이성($\beta = .67, p < .001$)은 유아의 행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창의적 가정환경이 조성될수록, 유아가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일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은 높았다.

표 5.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 (N = 233)

경로	B	β	S.E.	t	R ²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 유아의 행복(c)	-.19	-.29	.04	-4.62***	.08
$F(1, 231) = 21.30^{***}$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 창의적 가정환경	-.15	-.29	.03	-4.64***	.09
$F(1, 231) = 21.49^{***}$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 유아의 놀이성	-.19	-.30	.03	-5.46***	.35
창의적 가정환경 → 유아의 놀이성	.51	.42	.06	7.62***	
$F(2, 230) = 61.31^{***}$					
창의적 가정환경 → 유아의 행복	.30	.24	.06	5.02***	.63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행복	.70	.67	.05	13.36***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 유아의 행복(c')	.04	.07	.03	1.45	
$F(3, 229) = 127.36^{***}$					

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인의 총효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의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의미함.

*** $p < .001$.



주) 화살표 앞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인의 총효과, 화살표 뒤는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의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의미함.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유아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은 매개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아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7, n.s.$). 즉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완전매개되었다.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 각각을 통한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표 6),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beta = -.07, 95\% \text{ CI} = -.11, -.03$)과 유아의 놀이성($\beta = -.20, 95\% \text{ CI} = -.29, -.12$)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beta = -.08, 95\% \text{ CI} = -.13, -.05$).

표 6.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N = 233)

경로	부트스트래핑 추정치		95% 신뢰구간	
	간접효과(β)	표준오차	하한선	상한선
X → M1 → Y	-.07	.02	-.11	-.03
X → M2 → Y	-.20	.04	-.29	-.12
X → M1 → M2 → Y	-.08	.02	-.13	-.05

주 1) bootstrap 표본은 5000번임.

2) X =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 M1 = 창의적 가정환경, M2 = 유아의 놀이성, Y = 유아의 행복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 유아의 놀이성, 그리고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성의 순차적 매개가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 모두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은 창의적 가정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놀이지지신념을 가질수록,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학습중심신념을 가질수록 창의적 가정환경을 더 조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놀이신념을 가질 때 가정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을 조성하고(안세은, 김지현, 2022), 부모가 참여적 놀이신념을 가질 때 높은 질의 가정환경을 구축한다는(오혜선, 김지현, 2021)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창의적 가정환경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 가정환경의 요소인 아동존중이나 독립심 자극과 배치되는 부정적 놀이 상호작용에 학습중심신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임예슬, 한유진, 2015)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가지는 놀이에 대한 신념이 실제 놀이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은 유아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창의적 가정환경이 조성될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가정환경의 요소와 유사한 변인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확인되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을 할수록(이주연, 이지영, 2020), 다양한 경험과 놀이활동이 지원되는 환경이 제공될수록(최목화 등, 2017), 그리고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이경선, 2017) 유아의 행복감이 증진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물리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마련하고, 유아를 존중하며, 자율성과 독립심이 증진되도록 돕는 양육을 할 때, 유아는 안정되고 지지적인 가정환경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가정환경에 의해 매개되었다. 즉, 가정 내 창의적 가정환경은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더 보이는지 혹은 학습중심신념을 더 보이는지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었으며, 이는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놀이신념, 창의적 가정환경 및 유아의 행복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 권리를 인식할 때 유아와의 놀이에 더 참여하고, 이는 유아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결과(김갑순, 채신영, 2021)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을 높이고 학습중심신념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신념은 상대적으로 보다 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풍부한 탐색거리 등을 제공하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창의적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 모두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예상한 대로 어머니의 놀이신념 중 놀이지지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놀이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놀이는 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놀이지지신념(유미, 2008)과 발달적 놀이신념(심미영, 이문옥, 2018)을 가질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놀이의 가치를 폄하하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중심신념을 가질 때 유아가 낮은 놀이성을 보인 결과(최민자, 김진경, 2022)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놀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가질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모의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자녀는 놀이 상황에 대한 지지나 거부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유아가 놀이성을 발현시킬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여 유아가 높은 수준의 놀이성을 보일수록 유아의 행복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놀이 안에서 자발성, 즐거움, 유머 등의 특성이 발현될 때 유아의 행복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들(안미현, 김정미, 2017; 최유석, 임지영, 2021; 홍지명, 2021)과 일치한다. 놀이가 유아의 행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도남희 등, 2014; 황해익 등, 2013)을 고려해 볼 때, 놀이에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특성인 놀이성은 유아가 놀이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확장된 놀이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몰입과 성취는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기에 유아가 놀이에서 인지적 융통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몰입하는 과정은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놀이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와의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행복감을 높였다는 연구결과(이현지, 정혜옥, 2016)나, 부모의 놀이 지원이 유아의 놀이성을 높이고,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결과(최유석, 임지영,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유아가 더 많은 놀이 기회와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성이 발현되도록 하였고, 이는 곧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높은 학습중심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저해하여, 유아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보다는 놀이지지신념을 가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뿐 아니라 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과 학습중심신념이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놀이성을 통해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두 매개변인 간 관계는 유의하여, 창의적 가정환경이 제공될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았다. 이는 가정환경과 유아의 놀이는 밀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김지윤, 2016; Barnett & Kleiber, 1982)과 같은 맥락이며, 가정 내 놀이 장소, 놀잇감 등의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가 유아에게 높은 반응성을 보이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지윤, 2016)와 일치한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유아가 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차적 매개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놀이지지신념을 보일수록 창의적 가정환경이 조성되었고, 유아의 놀이성은 높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복을 증진하였다. 반면, 어머니가 학습중심신념을 보일수록 창의적 가정환경은 덜 구축되었고, 유아의 놀이성 수준도 낮았으며, 이는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였다. 네 변인을 모두 포함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민영, 박현성, 2020)에서 부모의 인식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놀이지원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놀이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유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이성으로, 유아기 놀이와 행복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점검하고,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었지만, 유아의 놀이와 놀이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 심리적 가정환경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놀이지지신념은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유아의 행복에 여전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놀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놀이지지신념을 가질수록(이현지, 정혜옥, 2016), 그리고 어머니가 놀이를 유아의 권리라고 인식할수록(김갑순, 채신영, 2021; 김진희, 2020) 유아의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선행 연구들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내재화된 신념과 인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반면, 어머니의 학습중심신념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유아의 행복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습중심신념과 유아의 행복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습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고(도남희 등, 2014), 학습분야 사교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이승미, 김언경, 2018)들이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중심신념의 경우 학습 중심의 가정환경을 조성하거나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실제 양육행동이나 참여에 반영될 경우에만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에는 놀이와 학습을 모두 중시하는 균집유형에 관한 일부 연구(최은혜, 2022; Lin & Li, 2019)들도 보고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놀이 신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놀이신념의 유형별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가 촉진되는 가정환경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을 연구하였다. 비록 창의적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놀이가 촉진되는 환경에 부합하지만, 본 도구는 놀이 환경이 아니라 창의성을 증진하

는 환경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현재까지는 놀이를 촉진하는 가정환경을 측정하는 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유아의 놀이와 창의성 간의 밀접한 관계(김호, 유영의, 2011; 송민영, 1998)에 근거하여 본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추후에는 놀이에 보다 초점을 두어 이를 촉진하는 환경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사용 유아행복 척도를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행복 수준에 대해 어머니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어 과잉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상생활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잘 관찰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보고나 유아 인터뷰를 병행하고, 문항을 재구성하여 일상에서의 유아의 행복 상태를 측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창의적 가정환경과 놀이성을 통해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횡단 연구의 특성상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변인 간 관계 및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놀이신념,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 개인 내적인 요인인 놀이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봄에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요소로서 놀이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가정 내 놀이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행복에는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환경이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연, 이진희 (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453-461. <https://doi.org/10.5762/KAIS.2020.21.7.453>
- 권기남, 성미영 (2010). 유아의 행복감이 행동문제 및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57-270.
- 곽은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순, 채신영 (2021). 유아 놀권리에 대한 어머니 인식이 유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49-6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49>
- 김경철, 한유진, 김인애 (2019).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놀이신념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9(6), 349-375.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6.015>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https://doi.org/10.5723/KJCS.2012.33.2.69>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4.
- 김수예, 김현경 (2021). 부모의 놀이지지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3), 19-37. <https://doi.org/10.14698/jkce.2021.17.03.019>
- 김영희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7(2), 27-46.
- 김지윤 (2016). 가정환경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20). 유아의 놀권리에 대한 어머니 인식, 놀이참여가 유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49-64.
- 김혜숙, 고재홍 (2018). 어머니의 지혜와 자녀의 행복: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55-376. <https://doi.org/10.20497/jwce.2018.7.1.355>
- 김호, 유영의 (2011). 유아의 놀이성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 과정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333-352.
- 도남희, 배윤진, 김지예 (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영애, 김리진 (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박주은 (2016). 유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유아행복의 개념, 관련 변인, 측정도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5(3), 76-94. <https://doi.org/10.17643/KJCE.2016.25.3.05>
- 송민영 (1998).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영, 박현선 (2020).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과 놀이지원 행동이 자녀의 생활시간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1(2), 125-146. <https://doi.org/10.16999/kasws.2020.51.2.125>
- 심미영, 이문옥 (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 509-536. <https://doi.org/10.22590/ecee.2018.22.4.509>
- 안미현, 김정미 (2017).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213-228.
- 안선희, 성은현 (2016). 창의성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특성간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6(1), 63-79.
- 안세은, 김지현 (2022). 부모의 놀이신념이 부모-유아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1-10. <https://doi.org/10.7466/JFBL.2022.40.1.1>
- 오미형, 최보가 (2006).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창의적 가정환경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4(1), 1-10.
- 오혜선, 김지현 (2021). 부모 참여적 놀이신념이 유아기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475-487. <https://doi.org/>

10.22251/jlcci.2021.21.5.475

- 우혜진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 (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 (2017).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05-324.
- 이승미, 김연경 (2018). 유아 사교육 현황, 사교육에 대한 유아의 불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9(3), 31-48. <https://doi.org/10.15854/jes.2018.9.49.3.31>
- 이은주 (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 이지영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미디어 기기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7(4), 263-275. <https://doi.org/10.20496/cpew.2020.7.4.263>
- 이하정, 탁정화 (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39-61. <https://doi.org/10.14698/jkce.2015.11.4.039>
- 이현지, 정혜욱 (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4), 77-95.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3.059>
- 이효임, 신나리 (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시간의 매개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59-77.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3.059>
- 임예슬, 한유진 (2015).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부-자녀 간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2), 1-16. <https://doi.org/10.5723/KJCS.2015.36.2.1>
- 임진경, 노은호 (2014). 교육조력자로서의 어머니 특성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1.
- 장영숙, 조혜정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장은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조해연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목화, 손승희, 박정아 (2017). 보육실 환경 변화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및 놀이성의 차이.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6(4), 271-282. <https://doi.org/10.5934/kjhe.2017.26.4.271>
- 최민자, 김진경 (2022). 부모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6(2), 167-193. <https://doi.org/10.21459/kccr.2022.26.2.167>
- 최성열 (2016). 유아행복 관련변인 연구동향. **아동교육**, 25(4), 369-378. <https://doi.org/10.17643/KJCE.2016.25.4.19>
- 최유석, 임지영 (2021).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능력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1), 71-82. <https://doi.org/10.6115/fer.2021.006>
- 최은혜 (2022). 어머니의 놀이신념 군집유형에 따른 어머니-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창의적 가정환경 특성.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 김정화 (2021).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5(4), 511-530. <https://doi.org/10.21459/kccr.2021.25.4.511>
- 홍지명 (2021).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5), 2687-2699. <https://doi.org/10.22143/HSS21.12.5.190>
-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3). 만 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93-122.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 Barnett, L. A. & Kleiber, D. A. (1982). Playfulness and the early play environ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2), 153-164. <https://doi.org/10.1080/00221325.1984.9923421>
- De Neve, J.-E., Diener, E., Tay, L., & Xuereb, C. (2013) 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pp.54-79).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Dewey, J. (1993). *How we think*. D.C. Heath and Company.
- Fisher, K. R., Hirsh-Pasek, K., Golinkoff, R. M., & Gryfe, S. G. (2008). Conceptual split? Parents' and experts' perceptions of play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305-316. <https://doi.org/10.1016/j.appdev.2008.04.006>
- Fogle, L. (2003). *Parent beliefs about play: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 Carolina University.
- Fung, W., & Chung, K. K. H. (2022). Parental play supportiveness and kindergartners' peer problems: Children's playfulness as a potential mediator. *Social Development*, 31(4), 1126-1137. <https://doi.org/10.1111/sode.12603>
- Hirsh-Pasek, K., Golinkoff, R. M., Berk, L. E., & Singer, D. G. (2009). *A mandate for playful learning in preschool: Presenting the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https://doi.org/10.1080/00221325.1965.10533661>
- Lin, X., & Li, H. (2019). Chinese mothers' profile which values both play and academics predicts better developmental outcome in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3(1), 61-66. <https://doi.org/10.1177/0165025418767062>
- Parmar, P., Harkness, S., Super, C. M. (2004). Asian and Euro-American parents' ethnotheories of play and learning: Effects on preschool children's home routines and school behaviour. *International*

-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2), 97-104. <https://doi.org/10.1080/01650250344000307>
- Permiakova, M. Y., Tokarskaya, L. V., & Yershova, I. A. (2016). The research of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in senior preschoole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3, 100-104. <https://doi.org/10.1016/j.sbspro.2016.10.153>
- Schneider, E., & Rosenblum, S. (2014).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y Child's Play (MCP) questionnai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3), 277-285. <https://doi.org/10.5014/ajot.2014.009159>
- Shin, N., Vuaghn, B. E., Akers, V., Kim, M., Stevens, S., Krzysik, L., Coppola, G. et al. (2011). Are happy children socially successful? Testing a central premise of positive psychology in a sample of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5), 355-367. <https://doi.org/10.1080/17439760.2011.584549>
- Ward, K. R., & Sutton, G. W. (2009).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8(2), 184-186.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https://doi.org/10.1177/000312240807300202>

논문투고 : 23.02.23.
수정원고접수 : 23.03.28.
최종게재결정 : 23.04.06.